

나가사키 평화 선언

1945년 8월 9일, 이 마을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날로부터 80년이 되는 오늘, 이런 세상이 될 줄 누가 상상했을까요?

‘힘에는 힘으로’ 되갚는 분쟁을 지금 즉시 멈추어 주십시오. 대립과 분단이 악순환하여 여러 지역에서 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인류 멸망의 위기가 우리 지구촌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1982년, UN본부에서 원폭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연설한 고(故) 야마구치 센지 씨는 당시의 참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을 보니 눈알이 튀어나온 사람, 나뭇조각과 유리 파편에 찢린 사람, 반쯤 목이 잘린 아기를 품에 안고 미친 듯이 울고 있는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마치 돌맹이처럼 시체가 여기저기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에 이르러, 자신의 상처 사진을 그대로 보여주며 세계를 향해 있는 힘껏 호소하였습니다.

“내 얼굴과 손을 잘 보세요. 우리 원폭 피해자가 겪은 핵무기로 인한 죽음과 고통을 전 세계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그 누구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노 모어(no more) 히로시마. 노 모어 나가사키.

노 모어 워(war). 노 모어 히바쿠샤(원폭 피해자).”

이 가슴 깊은 곳에서의 외침은, 원폭 피해자들 마음의 결정체입니다.

증언을 통해 세계를 감동하게 한 원폭 피해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리고 그 활동을 인정받아, 작년에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가 결성된 것은 1956년. 심신에 깊은 상처를 입고 차별과 곤궁으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나 자신을 구하는 동시에, 나의 체험을 통해 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하자.’라는 선언과 함께 나가사키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인류는 핵무기를 없앨 수 있다.’라는 굳센 희망을 안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 온 원폭 피해자들의 모습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였고, 마침내 나가사키에 ‘지구 시민’이라는 단어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단어에는 인종과 국경의 장벽을 넘어, 지구라는 거대한 한 마을의 일원으로서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지구 시민’이라는 시각이야말로 분단된 세계를 다시 이어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전 세계 지구 시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할지라도, 함께 모이면 미래를 개척하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원폭 피해자는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 첫걸음은 상대를 아는 것입니다. 대화와 교류를 거듭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갑시다. 이것이 우리 시민사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만국 공통의 언어인 스포츠와 예술을 통해, 또, 발달한 통신수단을 통해 지구 규모로 교류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나가사키에서는 전 세계 약 8,500개 도시가 가입한 평화 시장 회의의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유대를 공고히 하고 연대의 고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구 시민으로서 공감과 신뢰를 쌓아 평화를 만드는 힘으로 바꾸어 갑시다.

지구 시민의 일원인 전 세계 지도자 여러분.

올해는 '전쟁 참화를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결의하에 UN을 창설한 지 8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초석인 UN 헌장의 이념을 되새겨 다자주의 및 법치의 원칙을 회복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 회의는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국면이 될 것입니다. 나가사키가 마지막 피폭지가 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폐기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전쟁 피폭 국가인 일본 정부에 호소합니다.

헌법의 평화이념과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하루라도 빨리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 및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 등을 통해 핵 억제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 보장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원폭 피해자들은 평균 연령이 86세를 넘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더욱 충실한 지원을 제공하고, 아직 원폭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원폭 경험자들도 조속히 구제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원자폭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모든 전쟁 희생자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올립니다.

피폭 80년, 나가사키의 사명으로서 전 세계가 기억해야 할 인류 공동 유산인 피폭의 기억을 일본 국내외에 계속 전해갈 것을 결의합니다. 영원히 '마지막 피폭지 나가사키'일 수 있도록, 지구 시민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핵무기 폐기와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선언합니다.

2025년 8월 9일

나가사키 시장 스즈키 시로(鈴木 史朗)